

안경 이야기

노안(老眼)과 돋보기

李 相 旭

사람이 증년에 접어들면 몸이 젊었을 때만 못하게 느껴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나고 또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눈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 60이 되어도 바늘귀도 꿰 수 있다」고 자기의 스테미너를 자랑하고 노화 현상이 늦게 온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느 누구든 눈의 조절(調節) 기능에 노화는 나이가 들수록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사람이 근시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가까운 곳의 물체를 잘 볼 수 있다는 것 뿐이다.

우리 눈은 잘 되어 있어서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을 볼 때 자동적으로 그 물체에 초점이 맞게 되어 있다. 이렇게 거리가 다른 물체를 볼 때 초점을 맞추는 작용을 하는 것을 조절(調節)이라고 부른다. 눈의 조절은 눈속에 있는 수정체라는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하는 것이 부풀었다 납작해졌다 해서 조절하고 있다. 가까운 곳을 볼수록 많이 부풀어져야 된다.

그러나 카메라에는 우리 눈과 같이 이런 자동장치가 없으니깐 일일이 찍을 때마다 거리에 맞추어서 렌즈의 위치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동핀트 조정장치가 나이가 들면 제 구실을 못하게 되니 곤란하다. 보통 45세 전후가 되면 책이나 신문을 볼려면 아물거리고 잘 안보인다. 좀 멀리 띄워놓고 보든지 환한 곳에서나 겨우 보인다.

이것이 즉 노안의 증세이며 이제는 늙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기

노안은 눈의 조절기능 異常, 나이 들면 누구나,

